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부속기관: 꿀벌유치원 857-8545 / 요셉어린이집 857-8546

주임신부	백승준	시몬
보좌신부	정혁	요셉 (청년부)
전교수녀	강봉목	마티아 (유·초·중·고등부)
	윤옥주	율리아 (원장)
	이민자	미란다 (중·고등부/청년부)
	최상순	수산나 (유·초등부)
꿀벌유치원	장종수	마리나
요셉어린이집	박화자	글라라
총회장	최석준	마르코 010-5715-0392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자녀를 위한 기도	8월 02일(금) 19:40	1교실
성모성심회	8월 03일(토) 17:30	강당
위령봉사회	8월 04일(일) 11:40	강당
M.E.	8월 04일(일) 11:50	6교실

● 전례교육 2차 안내

- 일시 : 7월 28일(일), 오후1시, 성전
- 강사 : 주임신부님
- 대상 : 해설자, 독서자, 관심있는 신자

● 수험생을 위한 가족 미사

- 일시 : 7월 29일(월), 오후8시
- 장소 : 소성전

● 전례교육 3차 안내

- 일시 : 8월 04일(일), 오후1시, 강당
- 강사 : 주임신부님
- 대상 : 본당 모든 성가대 단원
- * 토요일, 교중미사, 12시미사, 청년성가대

● 복사단 여름캠프

- 일시 : 8월 04일(일)~06일(화), 2박 3일
- 장소 : 강릉 옥계성당
- 문의 : 박미옥 도미니카(010-5736-1132)
- * 복사단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여름캠프

- 일시 : 8월 31일(토) ~ 9월 01일(일), 1박 2일
- 장소 : 안산시 대부도
- 참가신청기간 : 7월 14일(일)~ 8월 18일(일)
- 비용 : 1인 3만원
- 입금계좌 : 카카오뱅크 3333-1297-19040(신연미)
- 문의 : 최소현 로사(연합회회장 010-5735-5140)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 8월 03일(토) / 오전 6:30

● 알림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미사 8월5일(월) 10:30

● 다음 주일(8/0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7, 8월 없음	청소	19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7월 24일 ~ 30일)

교무금	6,495,000원
주일헌금	5,371,000원
감사헌금	최미라10만원 이석구 3만원 김성자30만원 이점례 5만원 박홍민10만원 박혁재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7/28	이영민	도현만	유숙종	안상록	김성해
8/04	황원선	심재순	김영균	안상록	권태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30			12:00
7/28	장인호	최승일	이운영	이계명	최영만	이화봉
8/04	최창열	하재민	황태영	김광수	김영배	김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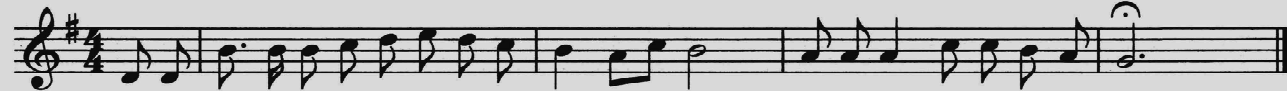
*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 안내 *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모은 E마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내 수거함)
※ 2개월이 경과한 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월 생활환경 캠페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철저히 합시다.
(가정생활환경분과 제안)

성가번호 ♪ 입당 : 31 ♪ 예물준비 : 215, 221 ♪ 영성체 : 156, 160 ♪ 파견 : 37

화답송 
주님 당 신손을 펼치시어 저 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새 '미사 전례시 총지침(2002년)' 에 따른 간주된 미사 전례 지침

부활의 기쁨이 살아나도록

2. 본래 실패와 치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그리스도교가 오히려 높이 추켜세우게 된 데에는, 온 인류의 의식을 거대한 바위나 태산보다도 더 무겁게 내리누르던 죽음, 그리고 그 원인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 시원히 해결해 주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신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슬픔과 어둠의 그림자가 아니라 부활의 찬란한 빛을 발하는 영광의 광원이 되었다. 바로 사도는 이를 더할 수 없이 힘찬 언어로 선포한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느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성서에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고린 2,1-10).

미사 전례는 바로 이런 의미의 십자가 신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힘으로 전달되는 그 부활, 새로운 삶의 기쁨을 지금 여기에서 다시 살려 내는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사 전례 전체 안에서 이러한 본래의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